

# Issue & Brief

## 지역사회 건강조사

### 제2호 (2020-02)

발행일 / 2020. 11. 30.

발행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발행인 / 이해우

ISSN / 2734-1712

이메일 / smhc-advisory@hanmail.net

연락처 / 02-3444-9934(직통연결7번)

누리집 / <https://blutouch.net>



주민의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한 지역 사회 건강 조사는 시, 군, 구별로 약 9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행태(흡연, 음주, 운동, 신체 활동, 식생활 등), 만성 질환 여부(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중독, 활동 제한 등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를 단순히 검토하는 수준으로는 우울감, 스트레스와 관련한 집단적 특징을 알아내기가 어렵다. 이에 본 사업지원단은 지역 사회 건강 조사 데이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울감 경험군과 고위험 스트레스 경험군이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 행태 및 만성 질환에 대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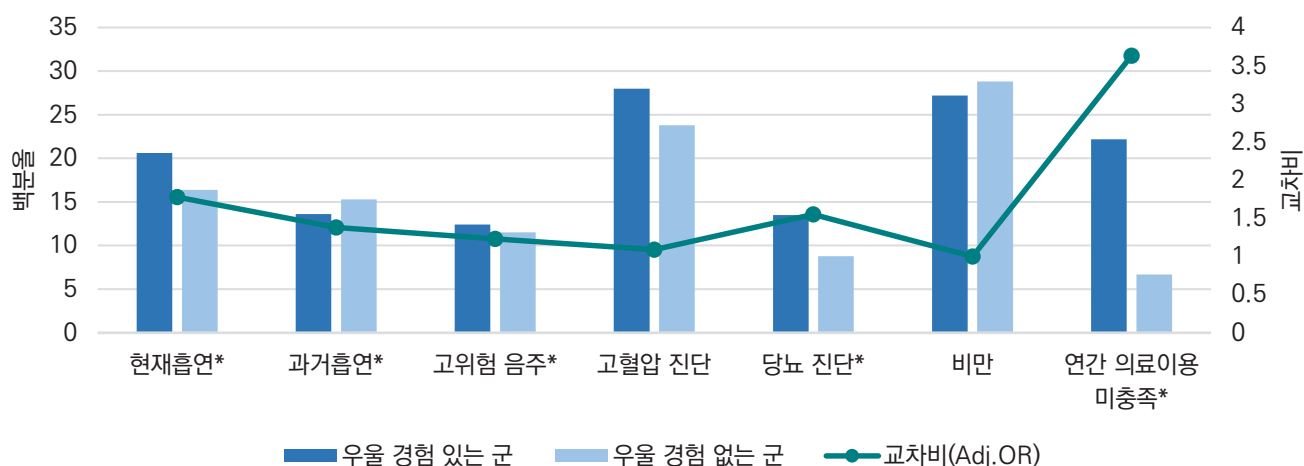
분석 대상이 된 2018년 지역 사회 건강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총 22,9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는 서울 내 중진료권으로 구분되는 4개의 권역(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018년 서울시민의 행태 요인에 따른 우울감 경험 비교

- 우울감 경험군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고연령군, 여성, 기혼, 1인 가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24.5%(289명)가 상담 경험이 있었다. 사회경제학적 특징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비경제 활동, 저소득층, 낮은 교육 수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 경험군과 연관 있는 행태 요인으로는 현재 흡연, 고혈압 진단, 당뇨 진단,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이 있다.
- 우울감 경험군과 비경험군을 나누어 건강 행태 및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을 비교한 결과 우울감 경험군에서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던 요인은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sup>1) 2)</sup>이었고, 그 외 요인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건강 행태 요인 : 우울감 경험군에서 현재 흡연\*, 과거 흡연\*, 고위험 음주\*와의 관련성이 높았음.
  - 만성 질환: 우울감 경험군에서 당뇨\*와 연관성이 높았음.

1) \* 두 군간 유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p<0.05$ ,  $p<0.01$ ,  $p<0.001$ , 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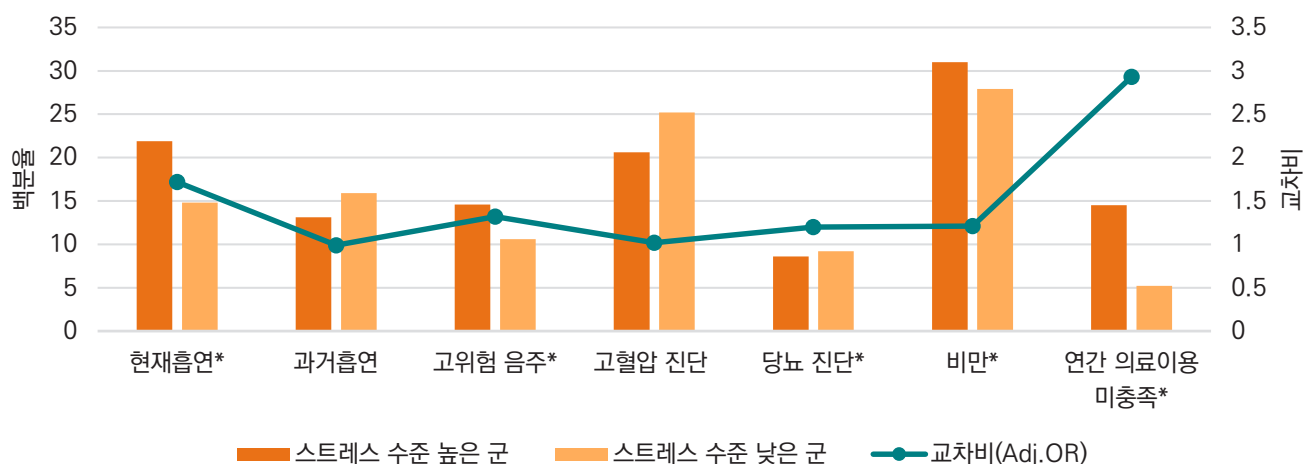
2) 연간 의료 미충족 :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원(치과 제외)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



[그림 1.] 2018년 서울시 전체 행태요인 분석 : 우울경험

## 2018년 서울 시민의 행태 요인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비교

-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40대 이하, 미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8.5%(495명)가 상담 경험이 있었다. 사회 경제학적 특징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경제 활동, 높은 교육 수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은 현재흡연, 과거 흡연, 고위험 음주, 고혈압 진단, 비만,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과 높지 않은 군을 나누어 건강 행태와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을 비교한 결과,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요인은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이었고, 그 외 요인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건강 행태 요인 : 스트레스 수준 높은 군에서 현재 흡연\*, 고위험 음주\*와의 관련성이 높았음.
  - 만성 질환 : 스트레스 수준 높은 군에서 당뇨\*, 비만\*과 연관성이 높았음.



[그림2.] 2018년 서울시 전체 행태요인 분석: 스트레스 수준

## 2018년 서울시 권역별 우울감 경험 및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 ● 권역별 행태 요인에 따른 우울감 경험 비교

- **인구 / 사회 경제학적 특징 비교** : 서남권역은 우울감 경험군과 비경험군이 노인 연령대에서 차이를 보였고, 다른 권역은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체 우울감 경험군의 비교 결과 여성, 1인 가구, 기초 생활 수급, 비경제 활동 요인이 우울감 경험군에서 높았지만 권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 생활 수급, 경제 활동 여부 등 사회 경제학적 요인은 권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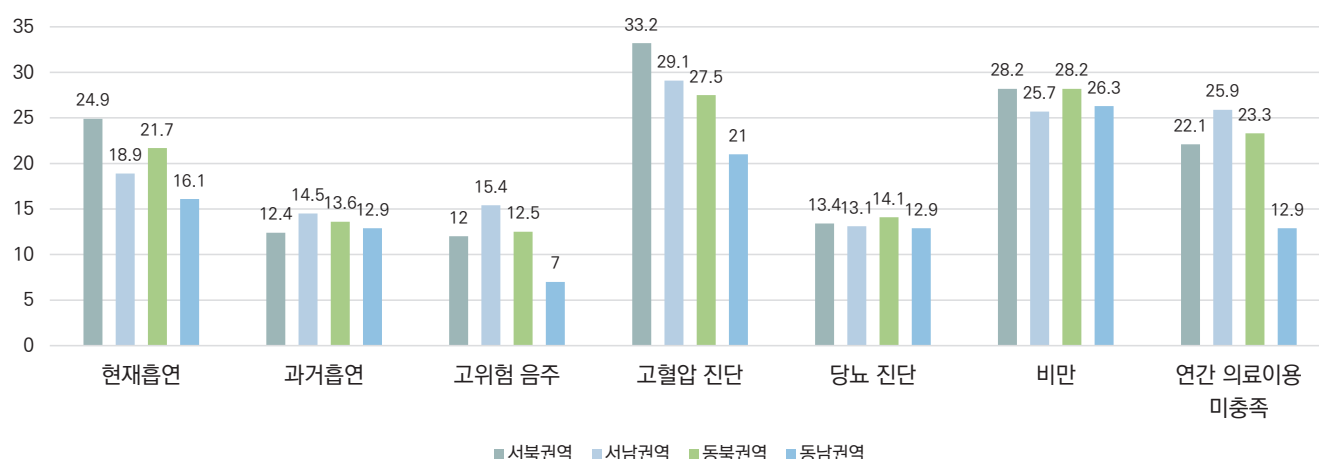
### - 권역별 우울감 경험 여부와 건강 행태 및 만성 질환과 연관성 분석

서북권역 :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이 가장 연관성이 높았고, 현재 흡연\*과도 관련이 있었음.

서남권역 :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이 가장 연관성이 높았고, 과거 흡연\*, 고위험 음주\*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동북권역 :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이 가장 연관성이 높았고, 현재 흡연\*, 당뇨\*와 관련성이 있었음.

동남권역 : 다른 권역에서 연관성이 높았던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과는 연관성이 없었고, 당뇨\*만이 우울감 경험군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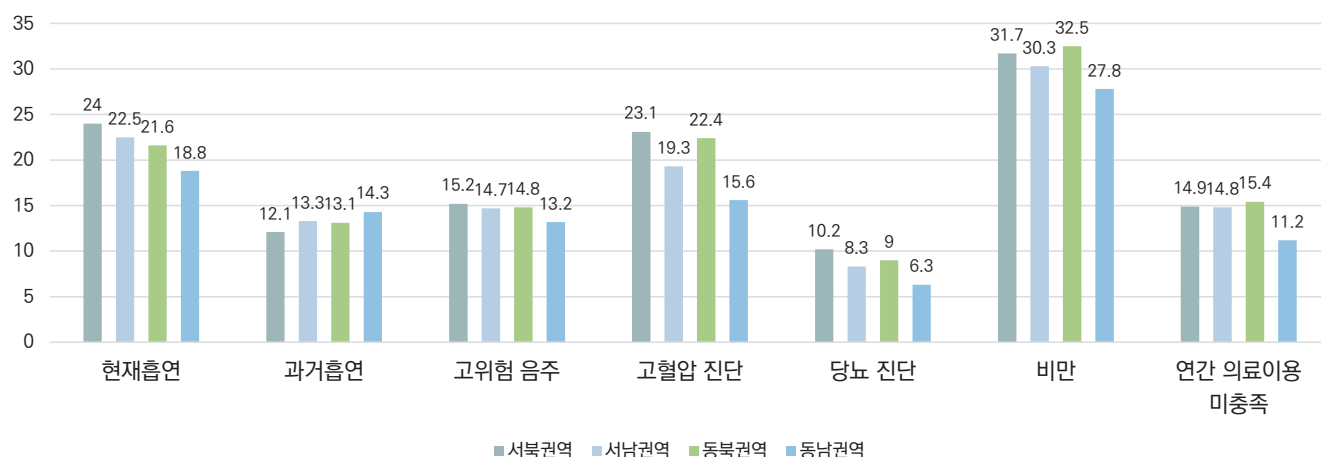


	서북권역		서남권역		동북권역		동남권역	
2018년 우울경험	Adj. OR	95% CI	Adj. OR	95% CI	Adj. OR	95% CI	Adj. OR	95% CI
현재흡연 여부	1.8*	1.06, 3.05	1.5	1.00, 2.25	1.99***	1.41, 2.80	1.78	0.98, 3.22
과거흡연 여부	0.97	0.47, 1.98	1.69*	1.09, 2.64	1.24	0.87, 1.78	1.65	0.81, 3.37
고위험 음주 여부	1.20	0.70, 2.07	1.78**	1.22, 2.60	1.15	0.81, 1.62	0.94	0.42, 2.09
고혈압 진단 여부	1.11	0.73, 1.70	1	0.72, 1.40	1.18	0.87, 1.60	1.03	0.54, 1.96
당뇨 진단 여부	1.09	0.64, 1.86	1.37	0.90, 2.10	1.57*	1.11, 1.23	2.71**	1.51, 4.86
비만(BMI25이상)	1.08	0.69, 1.69	0.86	0.63, 1.17	1.02	0.79, 1.32	1.16	0.75, 1.81
연간 의료이용 미충족 여부	4.4***	2.82, 6.89	4.12***	2.97, 5.71	3.84***	2.83, 5.19	1.78	0.98, 3.25

\*p<0.05, \*\*p<0.01, \*\*\*p<0.001

[그림3.] 서울 권역별 형태요인별 우울경험률

● 권역별 행태 요인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비교



	서북권역		서남권역		동북권역		동남권역	
2018년 스트레스경험	Adj. OR	95% CI	Adj. OR	95% CI	Adj. OR	95% CI	Adj. OR	95% CI
현재흡연 여부	1.81***	1.47, 2.24	1.91***	1.60, 2.28	1.54***	1.30, 1.48	1.69***	1.30, 2.19
과거흡연 여부	1.06	0.81, 1.39	0.89	0.72, 1.10	1	0.83, 1.22	1.06	0.79, 1.42
고위험 음주 여부	1.41**	1.11, 1.79	1.36**	1.12, 1.65	1.22*	1.04, 1.44	1.72***	1.27, 2.32
고혈압 진단 여부	0.93	0.72, 1.18	1.12	0.93, 1.36	1.05	0.89, 1.23	0.88	0.65, 1.18
당뇨 진단 여부	1.12	0.82, 1.52	1.26	0.99, 1.59	1.18	0.94, 1.47	1.24	0.86, 1.80
비만(BMI25이상)	1.31**	1.08, 1.59	1.13	0.97, 1.31	1.24**	1.08, 1.41	1.22	0.99, 1.51
연간 의료이용 미충족 여부	3.86***	2.87, 5.21	2.59***	2.10, 3.20	2.99***	2.47, 3.61	2.63***	1.87, 3.71

\*p<0.05, \*\*p<0.01, \*\*\*p<0.001

[그림4.] 서울 권역별 형태요인별 스트레스 높은 비율

- 인구 / 사회 경제학적 특징비교 : 동북권역은 스트레스 수준 높은 군과 낮은 군이 성별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다른 권역은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체 스트레스 높은 군과 낮은 군의 비교 결과와 같이 연령, 미혼, 기초 생활 수급, 경제 활동 등과 같은 요인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에서 높았고, 권역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 권역별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따른 건강 행태 및 만성 질환과 연관성 분석

서북권역 :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이 가장 연관성이 높았고, 현재 흡연\*과도 관련이 있었음.

서남권역 :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이 가장 연관성이 높았고, 과거 흡연\*, 고위험 음주\*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동북권역 :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이 가장 연관성이 높았고, 현재 흡연과 당뇨와 관련성이 있었음.

동남권역 : 다른 권역에서 연관성이 높았던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과는 연관성이 없었고, 당뇨\*만이 우울감 경험군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건강 행태에 대한 제언

건강 위험 행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울감 경험 여부와 스트레스가 국민 건강 행태(흡연, 음주,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및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과 갖는 관련성은 아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sup>3)</sup>와<sup>4)</sup> 여러 연구에서는 이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우울감 경험과 스트레스가 흡연이나 음주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과도한 흡연과 음주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울 및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운동 및 신체 활동 등의 건강 행태에도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4개 권역별 우울감 경험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건강 행태 요인 및 만성 질환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우울감 경험과 관련한 요인에서는 동남권은 당뇨 진단 여부, 서남권은 과거 흡연 여부, 고위험 음주,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 여부, 동북권은 현재 흡연 여부, 당뇨 진단 여부,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 여부와 각각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ioloro 외(2006) 연구<sup>5)</sup>에서와 같이 복합적인 건강 위험 행동이 상호적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우울감 경험과 연관성 높았던 요인이 많을수록 건강 위험 행동의 확률이 높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서남권, 동북권의 건강 위험 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4개의 권역별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강 행태 요인을 연구한 결과 모든 권역에서 현재 흡연, 고위험 음주, 연간 의료 이용 미충족이 높은 관련성을 보였고, 서북권역과 동북권역의 경우 비만 또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영역에서 비슷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서울 시민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지역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건강 행태나 만성 질환과 스트레스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인과 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Strine T. W. et al, The associa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with obesity and unhealthy behaviors among community-dwelling U. S. adult, 2008

4) 전진아 외, Trajectories of Korean adults' depressive symptoms and its associations with smoking and drinking: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ing, 2012,

김애정 외, 김옥수, 백성희, 장종화, 김정희(2007).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및 건강위험 행위에 관한 연구, 2007

신명식 외, 한국성인의 문제음주행태 관련요인 분석, 2002

5) Chioloro A et al, Clustering of risk behaviors with cigarette consumption: A population-based survey, 2006